



“그래도 명절...봄비는 시장” 치솟은 물가에 경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제주시민족오일시장은 제주용품을 구매하러 온 도민들로 북적였다. 손님이 잇따르면서 시장은 모처럼 활기로 가득했다. /사진 신용덕

“도민이 행복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

김경학 의장, 신년메시지서
복합위기 엄중함 여전히 남아
올해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메시지를 통해 도민 안녕을 기원했다.

김경학 의장은 도민 신년메시지를 통해 “12대 의회는 일상회복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안고 지난 7월 개원 후 6개월 간 실세 없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

을 찾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며 “2023년을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 준비에 매진해 도민이 행복한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올해도 복합위기의 엄중함은 여전히 유효하다.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에 집중해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며 “기후 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를 향한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무엇보다 2023년은 도민이 행복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올 한해 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무처장 김애숙, 총무담당관 김병훈

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이 임용됐다. 제주 도정 ‘첫 여성 사

무처장’이자 ‘첫 여성 이사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7일자로 사무처 직원 23명에 대한 2023년 상

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애숙 사무처장은 도내 여성 최초로 2급 지방이사관급인 사무처장에 승진됐다. 총무담당관으로는 김병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이 전 입됐다. /관련12면

지면 안내

종합	▶ 1
2023 새해 이모저모	▶ 2~3
주요 이슈	▶ 4~5
2023년 위원회 운영방향	▶ 6~8
주요안건 처리요약	▶ 9
생생 의정 활동	▶ 10
함께합시다	▶ 11
사무처소식	▶ 12





“ 힘차게 재도약하는 제주 기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1일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제주호국원, 조천 항일기념관 내 참열사, 제주4·3평화공원을 잇달아 방문해 참배했다.

“2023년 힘껏 뛰겠습니다”

도의회, 2일 시무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 결의문 채택,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의원 및 직원들의 실천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김경학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지난 6개월 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흔 다섯 분 의원 모두가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해 뿌린 씨앗이 올해는 싹 틔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며 “2023년은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해 도민이 행복한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천 다짐 결의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과 섬김의 자세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 모두의 미래가 희망에 가득 찬 제주를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 1.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

공식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만나 보세요!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제언을 담았습니다.
생생한 현장방문 모습도 소개합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더욱 친밀하게 다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공급방안 머리맞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17일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계절근로자제도 도입방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 입법정책포럼 (공동대표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의원)은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현재의 농업인력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자원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청년이주수요 등을 연계한 농업인력 공급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업노동제도현황과 제주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농업노동이 1개월 미만의 단기에 집중돼 있어 단기 농업노동 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도 이어졌다. 현길호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동부)·하성용(더불어민주

당, 안덕면)의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농업 노동지원 현황, 외국인 상용 및 임시근로자 지원, 고용허가제도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친지초청 인원활용, 외국인계절근로사업, 고용지원 훈련사업의 연계를 통한 농업 인력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됐다.

농업인력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임시찬 김녕리장은 "농업현장에서는 재배 작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가 각기 다르고 사업규모, 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한 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다"면서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주문했다.

현길호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력제도를 점검하고,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 추진에 대비해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업인력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현장 방문' 도민 소통 나서

김경학 의장 및 농수축위 의원
9일 당근수확 현장 등 찾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 강경흠(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읍)·박호형(더불어민주당, 일도2동)·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 의원과 함께 2023년 첫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당근 수확 현장과 월동무 세척·출하 현장, 주산지농협 방문으로 이뤄진 가운데 먼저 구좌읍 평대리 양영태씨 소유의 당근밭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구좌농협(조합장 윤 민)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2022년산 당근

재배면적이 지난해 태풍피해 및 가뭄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약 30.2%가 감소한 842ha이고, 출하량 감소에 따라 가격은 전년이나 평년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당근 생산 및 가격 동향을 살폈다.

이어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강석보)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산지유통센터를 방문, 월동무 세척·출하 상황을 살펴보고 작업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는 우리나라 겨울 야채 시장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월동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정책발굴·제도개선 앞장"

제주사회적경제포럼 17일
정기총회 및 현장방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읍)이 지난 17일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시작으로 올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2022년 활동실적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올해 활동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발굴을 위해 각 분야 실무전문가 10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위촉식도 개최했다. 이날 사회적경제기업 현장방문도 이어졌다. 제주참농, 지구별가게, 담을매장을 잇따라 방문해 포장, 유통,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경흠 대표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고 유통한 제품들이 도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진행할 간담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6기 옴부즈맨 운영위 회의

올해 활동 계획 등 논의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혁)는 지난 13일 소통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6기 옴부즈맨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2023년도 옴부즈맨 전체 활동계획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분과별 현장 방문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

사말을 통해 "제6기 옴부즈맨은 직능, 지역, 나이, 성별이 더욱 다양하고, 옴부즈맨 개개인의 열정과 의지가 강해 그 어느때보다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며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제보하고 해결해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옴부즈맨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6기 옴부즈맨은 지난해 10월 64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4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 적극 나서

18일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사람들로 북적...도민 관심 반영
내달 임시회 전 “공론화 한 차례 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도민 토론회가 열렸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역 사회 관심을 반영하듯 토론회장 안팎은 도민들로 북적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과장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 현행 공공하수도시설을 연결하던 것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표고 300m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공공주택·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

았다.

이어 송창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 교래리장이 패널로 참석,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제주는 특수한 지역이다. 제주는 물 사용량의 96%가 지하수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조례 상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나온 것 같다”며 “지역 특수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조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도시계획조례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제주도 건설경기와 경제가 얼마나 더 침체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워크숍을 내달 초 전문위원실과 함께 열 예정”이라며 “이후 도민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힘써달라”

도의회 18일 전통시장 방문
도민·상인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체감 경기와 물가를 살피는 한편 도민과 시장 상인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과 함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설 명절 물가를 체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만난 도민과 상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현재 고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의 장기화로 인해 밥상 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인데다 설 명절로 일부 가격이 으뜸세를 나타내고 있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상인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19종합상황실과 제주해양경찰청을 방문, 직원 등을 격려했으며 기로회요양원과 성자현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2곳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제주형 e스포츠 활성화 전략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일
발전·정책 방안 토론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e스포츠 분야의 제주형 성공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최은경 한신대 e스포츠 융합전공 대학원 교수가 ‘한국 e스포츠 중장기 발전 정책: 체육 종목화 이후 과제’, 이상민 제주도e스포츠협회 부회장이 ‘제주도 e스포츠 저변확대 방

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이 좌장을 맡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영심 한국교총 예결위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함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해외에서 2030년까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꼽히면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나, 아직 전국을 포함한 제주 역시 여전히 선결과제가 많다”면서 “제주 e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제주형 e스포츠 성공모델이 구체적으로 발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훈·김경미·현기종 의원 도 공무원이 뽑은 ‘우수의원’

송영훈(더불어민주당, 남원읍)·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의원이 지난해 제주도 공무원들이 뽑은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와 모바일조합원증을 통한 6급 이하 직원 6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정된 것으로, 정책질의와 입법발의, 직원 예우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도민카페에서 개최됐다.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노력”

4·3특별위원회, 4·3정담회 개최 강영자 작가와 ‘북콘서트’ 이어 ‘4·3특특정담회’등 펼쳐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지난 12일 도의회 열린소통공간에서 제1회 4·3정담회 ‘오늘의 기록, 4·3 미래를 열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3특별법 제정공포 23주년을 기념해 4·3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모두가 역사와 기록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4·3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3정담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는 북 콘서트로 4·3그림에 세이 「인동꽃 아이」 저자 강영자 작가와 함께 ‘강영자 작가의 기록’이란 주제로 펼쳐졌다.

제2부는 4·3특특정담회로 ‘22년의 기록, 23년의 설계’라는 주제로 지난해 4·3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2023년 새롭게 당면한 4·3의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덕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두화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이재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 권 위원장은 “4·3의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며 “앞으로 4·3정담회를 통해 소통과 나눔의 자리를 갖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진실을 채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읍), 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3트라우마센터를 방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청구, ‘주민e직접’하세요”

온라인 주민조례청구 시행 4개 조례안 심사, 1건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권자 수는 지난 10일 기준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다. 주민은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주민e직접시스템(http://www.juminegov.go.kr/)'에 접속,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주민조례 청구’ 제정 이후 4개의 조례안이 심사됐으며 심사 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1건, 각하 1건이다. 제정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은 청구 요건 부적합으로 각하됐다.

김경학 의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 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19일 제주국제공항서 전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직원 등 20여명은 지난 19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경학 의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

으로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도 세제혜택과 지역 특산품이 제공돼 기부자, 고향, 지역생산자 모두에 도움을 줄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관련 법률상 기부금 모금과 홍보방식에 제한이 많지만, 오늘 홍보 캠페인을 계기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가 대내외적으로 이뤄져 고향사랑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자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1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환경도시위원회,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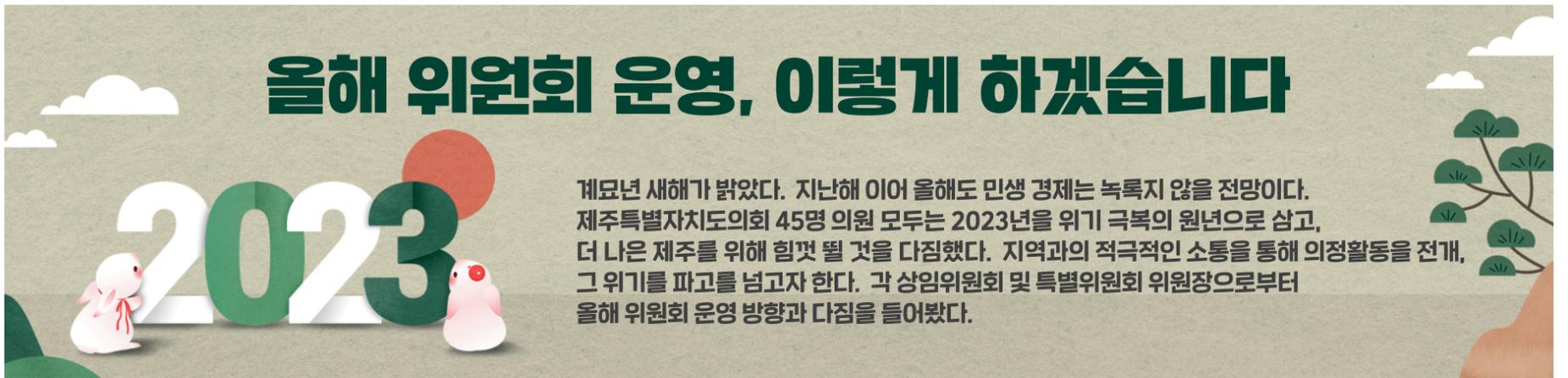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내용이 도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추후 심사때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 조례 워크숍을 시작으로 도민 사회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논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위원회 운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생 경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5명 의원 모두는 2023년을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더 나은 제주를 위해 힘껏 땀을 흘릴 것을 다짐했다.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전개, 그 위기를 파고를 넘고자 한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과 다짐을 들어왔다.



의회운영위원회

“생산적인 의정 활동 펼칠 것”



송영훈 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정과의 협력적 리더십 발휘와 동시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도정과의 내실있는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약속드립니다.

도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 다시 도민 삶 속에서 행복으로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이 넘치고, 제주 농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당당한 제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만들기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

며, 소중한 예산이 조화롭게 분배되고 포용적이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의회,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도민 가슴속에 스며들겠습니다. 지혜로운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정자치운영위원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강철남 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도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바뀌었던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적인 고물가고금리라는 인플레이션 시대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과제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민선8기 도정의 출범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제주형 행

정체제개편, 15분 도시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점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건설, 예레휴양단지 조성사업, 하수·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인프라 증설 등 당면과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정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견제와 감시, 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역할

에 충실하기 위해 도민의 의사가 도정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절차를 점검하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4:3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전하는 일도 챙기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의 믿음직한 공복(公服)으로 도정을 견인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전복지 향상 위해 눈높이 활동 전개”



김경미 위원장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더 가중되어 도민의 삶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이에 제12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및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의견청취 및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는 인구자연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료 인프라 균형 개선 과제 검토가 필요하며, 복지분야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촘촘한 사회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안전분야의 경우 지난해 10.29참

사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전담부서가 세부화됨에 따라 제주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및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제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도민의 행복에 집중 할 것”



송창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도민 여러분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위기는 불평등을 불러오고,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며, 소시민에게는 더욱 가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로 향해 있을 도민 여러분의 눈과 귀에 그리고 내미는 손길을 헤아

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도민과 함께 하며 도민에게서 얻은 지혜로 정의롭고 공정한 행복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의 딜레마를 미래지향적 소통과 원칙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듣겠습니다.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폐자원의 선순환 정책의 정상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질적 성장의 도시개발과 교통정책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상하수도시설

의 적기 확충 등 도정의 정책이 도민을 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정책의 실현 과정은 도민과 함께, 그리고 그 결과는 도민의 행복으로 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 도민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빛나는 의정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정이 되도록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제주를 위하여”



이승아 위원장

문화관광체육은 드디어 기지개를 펴고 도민의 삶에 다시 녹아들며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복합위기는 위협적입니다.

이제야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문화관광체육이 또다시 움츠러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내딛은 문화관광체육의 발돋움의 헛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문화분야예산 비중을 높이는데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 마련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문화예산 3%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지난해는 체육계 인권침해의 비리가 드러나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제도개선과 함께 도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연을 넓혀 국제교류 선도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발굴에 정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이 체감하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제주를 위하여 내실있는 정책생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현안 해결위해 도약 할 것”



강연호 위원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인 토끼처럼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지혜롭게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게 경청 도약 하고자 합니다.

새해에 풀어야할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인력난, 해상물류비 부담가중, 고유가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영비 증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CPTTP 체결로 인한 해외 농수산물 유입 및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침체 등 1차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정책을 발굴하고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도내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모빌리티 연관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현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새로운 교육환경에 선제적 대응”



김창식 위원장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일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교육현장이 이전 일상으로 회복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의 다양하고 혁신적 교육변화에 따라, 제주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 학교시설복합화 등 변화하는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주형 교육자치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육의 세계화에 걸맞게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자신의 꿈을 직접 체험하는 진로진학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체감될 수 있는 예산

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작은 학교와 과밀학급 등 직면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지원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학생과 교육가족의 교육회복을 이루고, 미래 인재 양성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안정의 첫 걸음 마련”



양경호 위원장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검은 토끼의 지혜를 받아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과 민생안정,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미래의 설계와 정책의 연속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본예산 7조원

시대의 개막’ 그리고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이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세계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인한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이 여전한 가운데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저성장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로 실물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대내·외 난관이 예상되지만 새 희망을 향한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당당하고 위대한 제주인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해내지 못할 게 없다고 믿습니다.

2023년 새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회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 깃들여 희망과 꿈이 이뤄지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4·3특별위원회

“약속의 ‘기록’을 ‘행동’으로 실천”



한권 위원장

2023년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희생자와 유족의 삶, 현재 4·3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 4·3의 정신을 알리고 계승해나갈 미래세대의 삶을 생각하며 ‘4·3(思·삶)’을 기억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채워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역사의 근간이며 4·3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정표이기에 ‘기록’을 통해 ‘4·3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첫째, 4·3희생자와 유족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억’을 ‘역사의 기

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3수형인의 직권재심 재판과정과 유족들의 사연, 4·3의 흔적들을 기록·축적해 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4·3유적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공간의 기억’을 ‘상생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역사 현장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4·3의 미래를 말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4·3유적지를 역사 교육 현장으로, 소중한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4·3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해

‘우리의 기억’을 ‘모두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변주를 활용하고,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전세계가 4·3의 평화적·인권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약속의 ‘기록’을 ‘행동’으로 실천하되,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4·3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하며 실제적 성과를 도민께 증명하는 4·3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도민과 함께하는 활동 약속”



현지홍 위원장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의 긴 터널을 지나 예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화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보장 필수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불안한 사회환경속에서 취약계층

을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를 비롯한 사회보장 필수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양성계획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하여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체계의 혼선을 빚음으로써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분절적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들의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삶 속에서 더욱 밀접하게 다가감으로서 사회보장의 재구성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더불어 과감한 실천으로 사회보장 포용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지속가능 미래환경 위해 역량집중”



강경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려는 듯 사회 곳곳에서 역동성을 느끼는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민의 보여준 인내와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여전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高)’는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바쁜 시기에, 미래의 제주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찌 보면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여겨집니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문명의 열쇠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

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해야 하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탈 플라스틱화 등 쓰레기 문제, 지하수·용천수 등을 이용한 에너지화 활용 등의 과제에 대해 제주도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제주도민의 관심과 격려로 그 동력을 갖고자 합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도민의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의정 주요 조례안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 공동발의: 김경미·송창권·이남근·홍인숙·한동수·정민구·박두화·이경심·강경흠·하성용·이상봉 의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창식 의원
- 공동발의: 양홍식·고의숙·이남근·오승식·강동우·강철남·김대진·양경호·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및 교육실습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양홍식 의원
- 공동발의: 강연호·하성용·이남근·김승준·강경흠·홍인숙·양용만·현길호·한 권·오승식·현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스마트양식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스마트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스마트 양식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고의숙 의원
- 공동발의: 강동우·정이운·김창식·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 권·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제주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대표발의: 강충룡 의원
- 공동발의: 이상봉·한 권·양병우·양홍식·양경호·박두화·강동우·김대진·양영식·송영훈·강상수·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고의숙
- 공동발의: 강동우·정이운·김창식·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 권·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정이운 의원
- 공동발의: 강동우·김창식·오승식·고의숙·이남근·김대진·양홍식·김황국 의원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사업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참여보장 사업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강경흠 의원
- 공동발의: 강연호·강성의·강상수·김기환·이경심·양병우·한동수·강동우·하성용·김승준·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활성화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해 농업·농촌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천연염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인증 △천연염색에 대한 교육 및 상품개발과 전문 컨설팅 △천연염색과 연계한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등 추진.

제주-베트남 교류 협력 강화 기대

제주도의회 베트남 방문단 국회 및 끼엔장성 인민회의 방문 도시 간 직항노선 개설 등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베트남 방문단은 지난달 26일 베트남 인민회의를 방문해, 마이 반 후인(Mai Van Huynh) 의장 및 의장단을 만나 양 의회간 국제교류 및 직항 노선 개설, 농어촌 인력 공급 공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 도시간 직항 노선을 조속히 개설해 농·수·축산물 등 경제분야와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양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측이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양 의회가 갖고 있는 지



방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베트남 국회 한-베친선협회(회장 응웬 티 탕) 및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연이어 방문해 농촌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국회와 대

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베트남 주요도시와 제주간 직항 노선 개설을 요청하는 한편 제주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이 베트남에서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가 베트남과 수출, 관광, 경제 등 전방위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나눔문화 확산 김기환 의원 동참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제주 나눔리더’로 가입,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주 나눔리더’로 가입을 하면서 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지만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소망의 씨앗이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기환 의원이 기부한 나눔리더 성금은 전액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나눔리더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캠페인으로 1년 동안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에게 나눔 리더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등이 나눔리더 가입에 동참했다.



김경학 의장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 선정

박호형 의원 ‘우수의원’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우수의원으로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일 의장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선정한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장애인정책 최우수·우수의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김경학 의장은 장애 영유아 돌봄 지원 강화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아 특수학습 설치 운영 확대의 필요성과 학령기 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대안 제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 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체육,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발언 등을 했고, 장애인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해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경학 의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 선정제도는 도의원에겐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호형 의원, 카메라기자회 선정 ‘올해의 의원상’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제주카메라기자회가 뽑은 ‘올해의 의원상’에 선정됐다.

지난 9일 KBS제주방송국 1층 전시실에서 제주카메라기자회가 뽑은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박호형 의원이 상패를 전달받았다.

박호형 의원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을 견제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도정 정책 방향을 끌어낸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높은 회의 출석율은 물론 장애인 복지 분야 입법에 앞장섰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를 끌어냈다.

박호형 의원은 “도민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의 의미와 무게를 알고 있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 초심을 잃지 않으며 더욱더 제주도민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의원상’은 1차 평가인 본회의 출석률과 조례 발의 건수를 합산하여 9명의 의원으로 압축했으며, 2차로 주요 의정활동,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수상경력 등의 평가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3차 평가인 제주 카메라 기자들의 전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학생자치활동은 참다운 민주시민교육의 밑거름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삶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세상이 제아무리 빠르게 변화하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과 또 타인과 함께 협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풍부한 인간성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등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혼자서 기를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만 꽃 피울 수가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생활, 이를테면 수업, 급식, 청소, 교육봉사, 환경보전, 동아리 활동 등 학교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결정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학생회 회의실 구축
필요예산
과감히 지원해야**
정 이 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아침 늦게 등교하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교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진정한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성인이 학교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회 회의실을 구축하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지원해줘야 한다. 이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인 학생회의실 구축·지원이 절실하다. 학교별로 회의실 구축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회의 공간이 없는 학교가 수도룩하다. 더욱이 초등학교는 상황이 심각해서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에 기본이 되는 회의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많이 늘려야 한다. 학교기본경비 내 총액교부사업으로 포함된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회 공약 이행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율해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과 후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학생자치의 공간과 시간 확보를 통해 학생자치 정책을 활성화해 민주시민교육을 꽃피워야 한다.

지난주 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하게 된다. 이제 조례를 근간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학생자치 활성화는 미래교육 중에 민주시민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어디서나 가능

만 17세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면 한번은 고민할법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학업 중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걱정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발급 제한도 2017년 7월1일 이후 동일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같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제주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발급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해**
강 미 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2023년 1월12일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소는 제주시인데 서울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이제 전국 어디든 가까운 읍·면·동

에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재발급 신청과는 달리 만 17세가 되는 달부터 12개월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발급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부득이하게 발급 신청이 지연돼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개선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 되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편안한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6.4% 할인받자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이륜차(125cc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돼 연납신청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각각 6.4%, 5.2%, 3.5%, 1.7%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해당 시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서
신청할수 있어**
한 경 훈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 돼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폐차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환급계좌를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알려주기 바란다.



의정홍보 최우수 ‘행자위·의사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하반기 의정홍보 최우수 부서로 행정자치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을 선정했다. 지난달 30일 의정 홍보 우수부서 및 기고왕 시상식이 개최된 가운데 우수부서 최우수상에는 행정자치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을, 우수상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장려상 교육전문위원이 선정됐다. 또 기고왕에는 의사담당관 김영신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라며 “2023년에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첫 여성 이사관’ 탄생

김애숙 사무처장 승진 임용 총무 담당관에 김병훈 서기관

김애숙 사무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사상 첫 여성 이사관’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상 첫 여성 사무처장’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김애숙 사무처장의 이사관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애숙 의회사무처장은 1984년 공직에 입문해 제주도 총무과 경리담당, 인개개발원 사회교육과장, 도의회 총무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부이사관 승진 후 도 관광국장을 거쳐 2023년 1월 17일자로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용됐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첫 여성 사무처장, 도정 사상 첫 여성 이사관이 탄생했다. 개인의 영예뿐 아니라 도의회의 자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여성 공직자들에게 보

이지 않았던 벽이 허물어진 만큼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총무담당관으로는 김병훈 서기관(사진)이 임명됐다. 김병훈 서기관은 지난 1992년 공직에 입문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심의과장, 청렴혁신담당관, 교통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경리팀장은 강경순 사무관, 소통협력팀장은 김경미 사무관이 임명됐고, 사무관 승진 의결자인 김미숙 주무관은 재정연구팀장 직무대리, 김영균 주무관은 미디어팀장 직무대리에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인사명단 ◇승진 ▲6급 △총무담당관 이준협, 이상민 ◇전보 ▲6급 △농수축경제위원 강동희 ▲정책입법담당관 현형진, 원영돈, 고은해 ▲7급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강은정 △총무담당관 윤지혁, 김소현, 양호석.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9회	총126일 ·정례회 2회/ 39일 ·임시회 7회/87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1일	
2월 ~ 3월	제413회 임시회	2.23.(목) ~ 3.8.(수) (1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제414회 임시회	4.10.(월) ~ 4.21.(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도청·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5월	제415회 임시회	5.16.(화) ~ 5.26.(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6월	제416회 제1차 정례회	6.13.(화) ~ 6.28.(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제417회 임시회	7.11.(화) ~ 7.18.(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8월				
9월	제418회 임시회	9.8.(금) ~ 9.22.(금) (15일)	본회의 7일 상임위 4일 공휴일 4일	·도청·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19회 임시회	10.10.(화) ~ 10.31.(화) (22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4일 공휴일 6일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20회 제2차 장례회	11.14.(화) ~ 12.6.(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6일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21회 임시회	12.11.(월) ~ 12.15.(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2022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학교수·변호사·기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심사에 참여한 가운데 입법, 행정감사 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입법활동부문에 최우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울), 우수 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울)·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의원이 선정됐다. 행정감사부문에 우수 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한 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한동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울)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정활동 협력부문 유공자로는 고보선·김민정·김성균·김은영·김철홍·박정호·부복조·안동훈·이은경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날 연말 표창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역 발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한 도민 및 공무원 110명이 표창을 수상했다.